

“더이상 ‘임의단체’일 수 없다”

교수협의회 활동과 역할을 진단한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88년 결성된 이후 교수들의 집단적 논의의 의사결정권을 위한 대표적 자치기구로서 교수의 권익보호와 학교운영에 대해 학교측에 건의하는 등 기본적인 역할과 학교의 예산심의, 장학금심의, 교수처우개선 요구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또한 교수협의회는 ‘대학자립협의회’의 한 주체로 이에 대한 연구와 입장을 밝히는 등 학내의 각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 동문)의 대표기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학사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두어 학사행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까지도 연구, 검토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정경대의 다른 단에서 활동하던 곳은 없지만 각 단과대학별로 1, 2명의 평의원이 구성되며, 단과대학별로 구성된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 임시총회와 1년에 한번 정기총회를 개최해 총장, 학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건의하는 등을 골자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타학과와 연계한 사립대

교수협의회 연합회(이하 사교연)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재개정을 위한 연구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그간 교수협의회와 학내의 다른 교수들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안들을 심의·건의하고 이를 통한 적절한 해결이 가능했는지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선 교수협의회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월 총학생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교수협회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에서 ‘교수협의회는 임의단체’라고 규정되었다. 법적으로 교수협의회는 학교의 공식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단체라는 표현은 현재까지 교수협의회와 학내의 다른 교수들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수협의회는 학내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내의 다른 교수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 그 위상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교수협의회는 교수회의와 다른 성격에서 애매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활동폭을 규정지을 수 없다. 현재까지 교수회의가 학교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약했다.

학교마다 교수협의회는 그 활동과 지위가 다르며, 사립학교법 개악이후 총장선출과 교수임용 등 학내문제에 대한 교수협의회 역할이 축소된 학교도 있다.

교수협의회 활동이 비교적 원활한 국내의 경우 활발한 회의 또는 연구를 통해 교수협의회와 집단의 의사를 개진 함으로써 학사행정 및 학교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교수회의와 관계가 애매하지만 국내 교수협의회는 나름대로 입지를 강화하고 평교수들의 주체적인 조직으로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다.

반면 새교대의 경우 직선총장선출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 활동이나 명확한 대안제시는 미

단적으로 교수협의회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회원60명 중 4명의 교수가 남아있는 새교대는 활동에 비해 조직구성, 결집력이 미비할때 외부단입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교수협의회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수협의회가 활동이 거의 없는 학교도 많이 있다. 한국교대의 경우 교수협의회에 전제교수가 회원으로 있으나 실상 교수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를 아니하면 개입하기를 꺼리며, 학내연구부 위기조성과 교수들의 권익보호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사행정에 대한 심의·건의 정도의 제한된 활동 총장선출등 중요한 학교운영 민주적 참여 보장돼야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8일 1차유세를 가지고 이번주부터 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오는 13, 14일 유세를 가진다. 또한 투표는 14, 15일 이틀간 실시되며 총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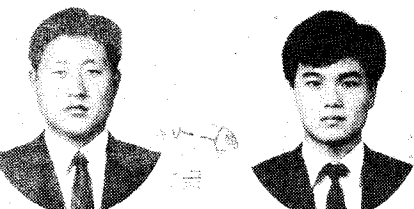
수원 총학선거 지상유세

생회 선거는 총학생회 선거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후보의 선전을 부채위치를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각 단대 선거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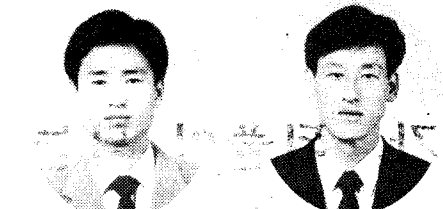
총학생회장 후보

〈기호1번〉
조국과 경회를
사랑한다는
그이유 하나만으로



정 이재표(중문·4) 부 고재건(기계·2)

〈기호2번〉
대학을
대학단게
경희사랑 한 뜻으로



정 유인학(전자·3) 부 김명진(체육·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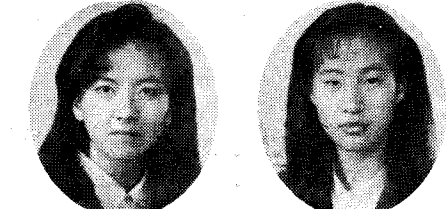
〈기호1번〉
홀아진 이름모아
하나되는 그날까지
가자! 제2대 총여학생회와 함께



정 이윤희(영문·3) 부 박성신(물리·2)

총여학생회장 후보

〈기호2번〉
천지를 뒤흔드는 백두의 모성애로
진달래피뿔 사랑을 담아 들들의 단상으로
피어나라 경희여성이여!



정 오미연(행정·3) 부 박순정(불문·2)

◇ 약력 (1) 충북 청주출생 (2)국외대학 학생회 선전부장 (2) 평양출생 통일선봉대 경희대 대상 (3) 외국어대 학생회장 (4) 학주부 평화대 위원장

◇ 약력 (1)전남 담양출생 (2)광덕고 졸 (3) 경희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입학 (4)공과대학 학생회 사회부장

◇ 약력 (1) 대전출생 (2) 유스호텔 학생회 고문 (2) 전자공학과 기획부장 (3) 총 대의위원회 감사국장

◇ 약력 (1) 춘천출생 (2)성수고등학교 졸업 (3) 체육학과대학 체육학과 입학 (4) 체육학과 대학 체육학과 재학중

◇ 약력 (1) 경기도 인천출생 (2)대 노래패 '작은 연못' 창단 (3) 영어영문학과 여학생부장

◇ 약력 (1) 전북 정읍출생 (2)교수위 선전부장 겸 여성학 연구위원 (3)물리학과 야간학과 증설 철도부설 물리학과 투쟁본부장

◇ 약력 (1) 서울출생 (2) 행정학과 여학생회 회장 (3) 총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홍보부장 (4)총여학생회 교육부장

◇ 약력 (1) 전남 영암출생 (2) 민족영화페스티벌 '편지' 편집부장 (3)전대평 문화국 산하 영상부와 용인성남지구 건설준비위원

1990학년도 동계 어학 연수(중국어)에 관한 안내

1990학년도 동계 방학 기간중 학생 해외 어학 연수(중국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가. 연수조건
- 1) 연수과목: 중국어
 - 2) 연수장소: 중국(북경, 외국어 대학)
 - 3) 연수기간: 1990년 12월15일-1991년 1월18일 (35일간)
 - 4) 연수지역: 위해, 연대, 북경
 - 5) 수업시간: 매주당 20시간(숙소: 기숙사)

나. 연수경비: 960,000(30명 기준 요금)

인원·위해·인건·캐피탈, 수업료 및 교재비, 기숙사비, 관공비, 보험료, 비자 및 제반 수수료 포함(여권 인지도 비용은 각자부담)

- 다. 지원방법
- 1) 관심있는 학생은 11월24일까지 국제교류사무국에 지원
 - 2) 지원서 계약금 10만원을 아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 사본을 지원서(국제교류사무국)와 함께 국제교류사무국에 접수

*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01-1657-684 (주) 삼일항공 (수금시 필히 입금인원에 경희대학교 및 이름 명시)

국제교류위원장

1990년 동계 문화연수(중국)

◇ 취지 ◇
일찍이 대학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본교 국제교류위원회는 최근 급격한 내외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동계 중국 문화연수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 나라의 대학, 산업체, 유적지 방문을 포함한 현장교육을 통해 역사, 문화, 경제, 사회 및 세계정세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폭넓은 이해를 돕는데 있습니다.

1. 대상지역: 중국(위해, 연대, 북경, 천진, 제남, 대안, 곡부 등)
2. 여행기간: 10월11일
3. 연수일정: 제1선 12월15일-12월25일 제2선 1월5일-1월15일 제3선 1월12일-1월22일
4. 경비: 70만원

* 만일 적정인원이 안될경우 일정을 변경한다(예: 제1선이 제2선과 함께 출발)

서울(인천)·위해 캐피탈, 관공비, 숙식비, 교통, 보험료 및 비자 및 제반 수수료 포함(여권 비용은 각자부담)

5. 숙 소: Hotel

국제교류위원회

1990년 통일 문제 학술발표회 안내

지난2-3년동안 세계는 급속하고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동구권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사상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수교를 가능케 한 여러 시도들, 북한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접근, 아시안 게임의 개최로 한 한-중의교류, 나아가 전일보한 남북한의 교류 및 대화 등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폭넓은 대안 새로운 전선의 수교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며, 궁극적으로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1983년 이후, 매년 통일 문제 관련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논문발표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취지 ◇
가. 일시: 1990년11월13일(화) 13:30-18:30
나. 장소: 본교 본관2층 대회의실
다. 발표 논문발표: 「미국과 대한반도 정책(신수석, 정치학과 석사 47)」 「한국의 북방 정책: 중국의 개방화와 관련하여」 (조종우, 정치학과 석사 27) 「한반도의 단계적 통일 모델 고찰」 (전세운, 정치학과 석사 27)

국제평화연구소

교회 안내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이리만큼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교회는 신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혜를 본받을 뿐 아니라 본 교회의 오셔서 구원받으시고 교회봉사(성가대·교회학교·교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위치〉
경희의료원 6층 본관과 별관사이

〈예배시간〉
주일아침: 1부 9시, 2부 11시
주일저녁: 매주 일 오후 7시
삼일 저녁: 수요일 7시
대학 청년부: 매 토요일 오후 5시

성지에서온교회

특수자료공개

본 중앙도서관에서는 금번 관계 기관의 특수자료(공산관계 자료) 공개범위 확대 조치에 따라, 그동안 취급금지되어 국한하여 활용되던 자료를 일반 학생들에게도 아래와 같이 널리 공개합니다.

1. 공개대상: 교수,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직원
2. 공개범위: 특수자료전반 (북한관계자료 포함) (단 본도서관의 미소장 자료를 요청할지는 통일 원통과 협의 및 보완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3. 공개일정: 1990.11.7부터 매주 수,목요일(주2회) (단 도서관 사정 여하에 따라 평일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열람장소: 10:00-16:00(점심시간 제외)
5. 자료내역:

구분	보유수량	비 고
일간지	7종 746종	
주간지	4종 282건	
월간지	33종 1,920건	
기 타	43종 1,112건	격월, 기간 등
소 계	87종 4,060건	
단행본	188건	
총 계	4,248건	

7. 열람 준수사항
- 가. 대출 및 복사는 일체금함(취급인자 제외)
나. 필기구에 소지품 지참을 금함
다. 출입시 반드시 학생증이나 도서관출증 제시
라. 자료열람시 반드시 열람대장에 기재
마. 열람한 자료는 열람과제에 그대로 놓아둘 것

중앙도서관

WESTERN INN

821 S. Western Avenu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733-2168, 937-8376(WESTERN)

웨스턴 호텔은 본교 동문(취직 전 LA동문 회장)이 운영하는 아담한 호텔로서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큰 쇼핑센터와 비즈니스센터, 한국계 은행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최절정에는 그동안 본교에서 주최한 여러가지 행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웨스턴 호텔을 이용하는 경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국제평화 목요 특강 안내

한반도의 군비통제 문제는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서화해 분위기 및 신 국제 질서의 모색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주변을 포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축 등 군비통제에 관련된 어떤 합의의 모형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1990년 중점 연구과제인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군사문제 관계 전문가 한분을 모시고 '소련의 동북아 군비통제 정책에 관하여' 특별초청 강연을 마련하였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변화 및 군비통제 연구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봉사담당 하실 줄 아나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사: 이 석 호(국방대학원)
일시: 1990년 11월 15일(목) 15시-18시
장소: 소련의 동북아 군비통제 정책
접수: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3층 세미나실
*기타 특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본 연구소
(☎ 966-1804, 961-0201)에 문의 바랍니다.

국제평화연구소